

서비스 소개서

프리케어 (PreCare)

데이터로 그리는 다음 세대 돌봄

일상 대화 한 통으로,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시니어 케어 솔루션

독거 시니어

보호자

복지 · 요양기관



시니어와의 일상 대화 한 통이,
가족의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정도 목소리도 못 보는 가족은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챱니다

전화를 드려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대화. 정작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놓치기 쉬운 변화가 쌓입니다.

HOW IT WORKS

일상 대화가 안녕 지수가 되어,
선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대화

일상 대화 수집



분석

안녕 지수 산출



대응

선제적 알림

“시니어와의 일상 대화를 통해 정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정 분석을 기반으로 안녕 지수를 산출해 보호자·기관의 선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세 명의 사용자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



독거 시니어

매일 AI와 나누는 짧은 음성 대화 한 통.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보호자

매일 아침, 어제 부모님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안녕 지수 한 장으로 확인. 이상 신호는 그 순간 바로 알림이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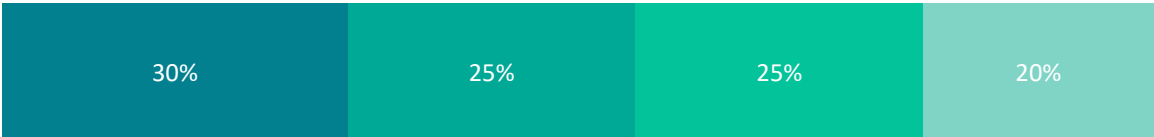
복지 · 기관

담당 어르신 수십 명을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대시보드 한 화면에서 누구부터 챙겨야 할지 바로 보입니다.

설명 가능한 안녕 지수

블랙박스 점수가 아닙니다. 대화 한 통이 왜 이 점수가 됐는지, 4개 지표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안녕 지수 = 감정건강도 30% + 감정흐름 25% +
대화활동도 25% + 신체안정도 20%



- 감정 건강도 30%
- 감정 흐름 25%
- 대화 활동도 25%
- 신체 안정도 20%

신체 이상 신호(CRITICAL)가 감지되면 해당 지표는 계산에서 즉시 빠지고, 나머지 지표로 재분배되며 보호자·기관·운영자 전원에게 동시에 긴급 알림이 발송됩니다.

다음 장부터, 4개 지표를 하나씩 쉽게 풀어드립니다 →



감정 건강도

비중 30%

쉽게 말하면

오늘 대화에서 드러난 기분을 봅니다. 웃음, 안부 인사처럼 긍정적인 말이 많으면 점수가 오르고, 슬픔·불안·짜증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예시

“오늘 손주가 놀러 왔어” → 점수 ↑

“요즘 통 입맛이 없어” → 점수 ↓



감정 흐름

비중 25%

쉽게 말하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최근 7일간의 방향을 봅니다. 어제 잠깐 우울했던 건지, 일주일째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건지를 구분해 냅니다.

예시 — 최근 7일 감정 점수 추이



악화 중 — 7일 연속 하락



대화 활동도

비중 25%

쉽게 말하면

최근 7일 중 실제로 대화한 날의 비율을 봅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고립·무기력의 신호일 수 있어 활동 빈도를 따로 추적합니다.

예시 — 최근 7일 대화 여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최근 7일 중 대화 2일 → 활동도 낮음



신체 안정도

비중 20%

쉽게 말하면

대화 중 나온 몸 상태 표현을 감지합니다. “어지러워”, “숨이 차” 같은 위급한 말이 나오면 이 지표는 계산에서 즉시 빠지고, 그 자리에서 긴급 알림이 갑니다.

예시 — CRITICAL 감지

“쓰러질 것 같아” 감지

→ 즉시 긴급 알림, 보호자·기관·운영자 동시 전달

* MILD·WARN 등 경미한 신호는 즉시 알림 없이 점수에만 반영됩니다.

안녕 지수 등급 체계

0~100점, 4단계 등급으로 지금 확인해야 할 대상을 가려냅니다.



안정

60~100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 알림 없음



보통

40~59점

경미한 정서 변화 징후



미흡

20~39점

주의 관찰 필요



저조

0~19점

즉각 확인 필요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알림 피로도는 줄이고, 실질적인 위험 신호만 보호자에게 전달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만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면 알림 대신 앱 내 표시로만 안내합니다.



하루 최대 1건

같은 어르신에 대해 일반 알림은 하루 1건까지만. 긴급 알림은 예외입니다.



위험 신호는 즉시

신체·정서 위험 발화가 감지되면 집계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 순간 바로 발송됩니다.



성실한 관찰, 정직한 지표

안녕 지수는 사용자의 정서 상태·대화 패턴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운영상 참고 지표이며, 의료적 진단 또는 정신건강 판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진단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선제 대응입니다.



데이터로 그리는 다음 세대 돌봄

보호자의 안심, 기관의 효율
AI가 만드는 새로운 시니어 케어

문의

주식회사인더스 전상진 대표
jin@indusweb.co.kr